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옐런 전 재무장관, “트럼프 정책, 미 경제 발전 저해한다”
- Bloomberg: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 “추가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압력 일으켜”
- YahooFinance:미 소득 하위 계층에 침체 다가온다

####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증시, 하락세에서 회복세
- CNBC: 비트코인, 9만5천불 내외로 약세

#### [미국 행정부]

- Bloomberg: 백악관, 휴직 공무원들에 목요일부터 근무 지시

#### [주택]

- CNBC: 미 새로운 주택 압류, 10월에 연 20% 증가

#### [에너지]

- WSJ: 천연가스 가격,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최고치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Z세대 근로자에 좋은 톱 10개 도시, 중서부에 위치

### [미국 경제]

#### **Bloomberg: Janet Yellen Says the US Is Undermining Its Economic Success**

##### **옐런 전 재무장관, “트럼프 정책, 미 경제 발전 저해한다”**

- 현재 워싱턴 DC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은 “트럼프 정책의 법에 기반한 룰 저해,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 대학에 대한 공격 등이 미국의 성장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약해지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할 경우 오히려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회사들과 개인들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그리고 트럼프는 연준의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의 책무를 무시하는 공공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그는 바이든 당시에 재무장관, 오바마 당시에 연준 의장, 그리고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s Schmid Says More Cuts Could Drive Inflation Pressures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 “추가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압력 일으켜”

-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인 Jeff Schmid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노동시장은 개선하기 보다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연준의 2% 물가 목표제가 점차 더욱 의문시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더 오랜 기간 여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그가 관찰하고 있는 캔자스 시티 연준 지역의 비즈니스 업체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점차적인 의료보험 비용과 보험료, 전기료 상승을 인용했다.

Bloomberg 기사

## YahooFinance: A recession is brewing at the bottom of the K-shaped economy

미 소득 하위 계층에 침체 다가온다

- 경제 양극화 상황에서 미 소득 하위 계층에 침체와 비슷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소득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Allianz의 선임 경제학자인 Mohamed El-Erian는 저소득층의 이미 침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양극화 형태인 K자형 형태의 경제를 인용하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소비를 원치 않아 소비 지출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어 지출을 못할 경우 이는 경제 전체의 상향 부문으로 옮겨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코로나 시대에 가격 충격이 있을 때는 소비자들이 정부 보조금, 임금 인상 등이 있었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3%로 거의 굳어진 상황에서 코로나 때 처럼 힘든 상황을 상쇄해줄 완충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 대규모 해고 보고서를 인용했다. 또한 AD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 규모는 겨우 4만2천개 성장에 그쳤다는 것이다.

YahooFinance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Stocks See Cautious Bounce From Lows as Tech Gains

미 증시, 하락세에서 회복세

- 미 증시가 수일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기술주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는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 당초 역사적인 연방 섰다운 종결로 회복세로 돌아서는가 했더니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입장이 신중해 지면서 증시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멘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인공지능 분야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 뉴욕 선물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1:00p 현재 S&P 500이 0.53% 하락, 나스닥은 0.55% 상승중이다.

Bloomberg 기사

### **CNBC: Bitcoin falls below \$95,000 as four-day rout picks up steam**

**비트코인, 9만5천불 내외로 약세**

- 비트코인이 오늘 금요일 오전에 9만5천불 아래로 하락하다 현재 9만5천불을 넘은 상태다. 최근 기술주 종목의 하락과 맞물려 약세 영역에 머물러 있다.
- 비트코인은 금요일 정오에 가까워지면서 \$96,293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번주 화요일만 해도 \$107,000를 기록했었다.
- 시가 총액에서 가장 큰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은 빅테크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빅테크 주식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CNBC 기사

### **[미국 행정부]**

### **Bloomberg: White House Orders Furloughed Workers to Return to Work Thursday**

**백악관, 휴직 공무원들에 목요일부터 근무 지시**

- 그동안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60만명의 직원이 휴직중이었고 사무실 운영은 중단됐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봉급 지급 등이 동결됐었다.
- 백악관은 이들에게 어제 목요일부터 업무 복귀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연방 지출법안에 이번주 수요일 오후에 서명한 때 따른 것이다.
- 백악관 예산 관리실은 메모를 통해 연방 관련 부처와 해당 공무원들에 13일 운영 재개와 복귀하도록 가이드를 내렸다.

Bloomberg 기사

### **[주택]**

### **CNBC: New foreclosures jump 20% in October, a sign of more distress in the housing market**

**미 새로운 주택 압류, 10월에 연 20% 증가**

- 미 주택 관련해 압류 초기 단계인 '압류 시작' 건수가 3만6천7백66건으로 10월에 전월 대비 6% 상승했고, 전년 동월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다.
- 압류의 마지막 단계인 '압류 마무리 조치' 건수는 작년에 비해 32%나 증가했다.
- 특히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스 등의 압류 조치가 가장 많았다.

CNBC 기사

**[에너지]****WSJ: Natural-Gas Prices Hit Highest Level Since Invasion of Ukraine**  
**천연가스 가격,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최고치**

- 미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 2022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12월 선물가격이 1백만 영국 열단위(BTU)당 \$4.646를 기록했다. 작년 동월에 비해 67% 상승한 수준이다.
- 연방에너지국에 따르면 올 겨울 미 가정당 평균 가스 비용이 작년과 비슷한 6백4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한편 미 LNG 수출은 올해 일일 큐빅 피트 당 1백49억 달러로 작년에 비해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CNBC: The top 10 U.S. cities for Gen Z workers, according to new report**  
**—6 are in the Midwest****Z세대 근로자에 좋은 톱 10개 도시, 중서부에 위치**

- Z 세대 근로자에 좋은 대도시 대부분은 중서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 기술 회사인 Checkr는 연방 센서스 자료 등을 이용해 지역별로 고용, 생활비, 여유, 사회 생활 등이 부분에서 점수를 계산한 결과 이들에게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은 생존하고 저축하기에 매우 힘든 곳이라는 것.
- 반면에 분주하기 않고 생활비가 다소 낮은 도시는 Des Moines와 Milwaukee 같은 도시로 나타났다.
- Z 세대에게 좋은 톱 10 도시는 아래와 같다.

1. Madison, Wisconsin
2. Minneapolis, Minnesota
3. Des Moines, Iowa
4. Omaha, Nebraska
5. Nashville, Tennessee
6. St. Louis, Missouri
7. Austin, Texas
8. Milwaukee, Wisconsin
9. Salt Lake City, Utah
10. Boston, Massachusetts

CNBC 기사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